

## 협회 46년의 애환 -식물상 조사를 중심으로-<sup>1)</sup>

이 은 복<sup>2)</sup>  
전 한서대학교 교수

### 머리말

1963년 10월. 지금부터 꼭 46년 전이다. 자연과학 분야의 몇 분 교수들이 한 교수의 연구실에 모였다. 생태계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이들은 '자연자원의 이용은 인류생존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자연자원이라는 것이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만 한다면 우리 후손의 안전한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는 우리의 자연자원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라는데 의견을 모은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된 자연보호 단체가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학술조사위원회'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자원은 유한한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고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자연과학자들 가운데도 별로 많지 않았다. 자연자원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자연은 구태여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유지되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처음 이 단체 참여자 수가 29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런 당시의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하겠다.

그 후 이 단체는 '한국자연보존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1966년에는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이라는 자연보호 국제기구에도 가입하는 등 우리의 자연보호 의지와 자연 및 자연자원의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1948년에 출범한 범세계적 자연보호기구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자연보존위원회 같은 세계 각국의 많은 NGO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름 그대로, 전세계의 자연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각국의 자연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다.

1967년, 명칭을 다시 '한국자연보존연구회'로 바꾼 이 단체는 보다 안정적인 연구활동과 국제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단체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969년 6월 당시 문화공보부 산하의 사단법인체로 등록을 한다. 그러나 이때의 우리나라 현실은 급격한 산업개발과 산업화 우선 정책으로 곳곳에 산업단지와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연지역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1974년, '한국자연보존연구회'는 우

1)Remembering the 46th Anniversary of KACN -On the Floral Reserch-

2)LEE, Eun-Bok, Admissions Officer, Hanser University; E-mail: eblee@hanseo.ac.kr

리나라의 자연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구나 국제 홍보보다도 우선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계몽활동이 더욱 요긴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적인 지부조직을 결성하고 그 이름도 이에 걸맞게 ‘한국자연보존협회’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이후 이 협회는 1974년에 실시된 내장산 일대 종합학술조사를 비롯해서 총 47회의 학술조사를 실시했으니까 협회로의 개편 이전에 실시된 한라산, 홍도, 설악산의 학술조사를 비롯한 9회의 학술조사를 합하면 지금까지 50여 회가 넘는 생태계 조사사업을 실시했고, 총 200여 건의 관련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등 학술연구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괄목할만한 것을 들자면 DMZ 인접지역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들 수 있겠다. 이 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생태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최초의 종합학술조사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지만, 미국의 스미소니언연구소라는 외국의 전문 학술연구기관과의 최초 공동연구조사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조사연구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이렇다. 1965년 11월, 당시 서울대학교 동물학과의 교수이던 고 강영선 교수는 그의 지인이면서, 서울대학교에서의 특별강연을 위해 내한한 미국인 학자 쿠릿지 씨를 만나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DMZ지역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가 미국의 스미소니언연구소에 전해지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65년 12월과 1966년 5월에 서울신문사의 후원아래 DMZ 인접지역에 대한 생태계 예비답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1966년 10월에는 마침내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와 우리나라 DMZ 생태계에 대

한 공동 학술연구 합의에 이르게 된다.

조사는 한국학자 30명과 미국학자 6명이 2년간 기초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스미소니언연구소측은 우선 11만불의 예산을 확보하며, 1968년 가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후원으로 생태학을 주축으로 하는 생물학연구소를 우리나라에 세우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일사천리의 계획들이 마련되었고, 진행도 순조로웠다.

그러나 2년간의 기초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스미소니언연구소와 본연구 계획의 합의서가 오고가는 즈음인 1968년 1월 무장계틸라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스미소니언연구소측은 한국의 군사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본조사계획을 중단한다고 통보해왔고, 부득이 우리는 기초조사만을 완료한 단계에서 DMZ 생태계조사를 마무리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연구 중단으로 기초조사 결과는 보고서도 만들지 못한 채 끝을 내게 되었으니 당시 이 조사에 참여했던 국내 학자들의 안타까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후 여러 방면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이 연구회는 1969년 5월, 문화공보부 산하의 사단법인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화공보부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 DMZ 인접지역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속개하고, 국내 곳곳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학술조사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자원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1974년, 당시의 사회 여건상 자연보호 국민계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한 이 연구회는 ‘한국자연보존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재출범하면서부터 자연보호 국민계몽 사업도 학술연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간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강연회와 세미나 등이 50여 회가 넘

고, 계몽지 ‘자연보존’을 147회 발간하여 전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 배포하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이 협회가 발간 배포한 ‘한국의 자연’, ‘설악산의 자연’,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도감’ 등의 단행본 10여 책도 우리나라의 자연 자원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 희귀식물의 발견

학술조사들은 대개 여름방학을 기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몹시 무덥거나 장맛비 속에서 진행되기 일쑤였다. 더구나 일정한 지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해야 하는 것이어서 자연히 고된 일정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동물분야를 조사하는 분들은 비라도 오는 날에는 본의 아니게 숙소에서 쉬기도 하지만 식물을 조사하는 분들은 우천불구이다.

1984년,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할 때의 일이다. 마침 조사일정이 장마기간과 겹치고 말았다. 조사 이틀째,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진다. 일부 분야는 이날 조사일정을 포기했고, 비를 무릅쓰고 조사에 나섰던 팀들도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자 대부분 비교적 일찍 조사를 마치고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왔다. 그러나 식물조사팀 한 팀이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저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오후부터는 폭풍우 주위보가 내려진 상태이고 설악산일대의 등산도 통제되었다. 시간은 저녁 9시를 넘어서고 있었으나 조사팀은 돌아오지 않는다. 당시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을 때이니 무작정 기다리는 것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우선 공원관리사무소에 달려 각 대피소 등에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 숙소에서는 걱정스러운 속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앞으로의 조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회의를 하는 중에도 모두가 귀는 문 밖의 소리에 쏠려있는 듯 했다. 동행했던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바쁘게 들락거렸고 이들이 들어 올 때마다 모든 대원이 이들의 입에 주목을 해보지만 답답하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회의는 마침내 모든 조사일정을 중지하고 철수하기로 결정이 났다. 조사의 실행을 맡은 필자만 남는다는 것이다. 밤 10시가 넘어선 시간, 초조한 가운데 문 밖을 서성대고 있던 필자의 눈에 멀리 이쪽을 향해오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 때의 반가움이라니....

다음날은 다행히 날씨가 좀 나아져서 전날 저녁 결정이 없던 일이 되었다.

이런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사원의 한결같은 활력소가 있다. 희귀식물의 발견 순간이다. 이 순간에는 더위도 피곤함도 잠시 잊게 마련이다. 그동안 필자가 동행했던 학술조사에서 있었던 희귀식물자원 발견 사례들을 몇 가지만 열거해 본다.

1974년 8월 2일, 내장산국립공원종합학술조사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창복 교수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며 희귀식물인 백운란 *Vexillabium nakaianum* F. Maekawa을 발견했다. 내장산 신선봉의 해발 약 700m 고지 부근에서다. 이곳은 흉고직경 30cm, 수고 20m에 달하는 희귀식물 이나무 *Idesia polycarpa* Maxim.가 분포하는 곳이다. 목격했던 이나무를 확인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 바위 위에 걸터앉은 이 교수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바위 위에 슬며시 올려놓고는 빙그레 웃는다. 낄새를 채 동행들이 무슨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냥 웃기만하던 이 교수가 카메라를 들고 모자를 벗기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찍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백운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특산식물 백운란의 발견이었던 것이다. 조사

첫날의 쾌거였던만큼 남은 조사기간 내내 즐거울 수밖에 없다.

애기바위솔 *Orostachys filifera* (Nakai) Nakai은 1986년 7월 25일, 이우철 교수가 태백산 백천계곡에서 발견했다.

1919년 Nakai가 관모산 1,600~2,400 m에서 처음 발견하여 보고한 이래 남한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근출엽은 피침형에 가까우며 로제트상을 이루고, 특히 잎겨드랑이에서 실같은 가는 줄기(axillares fili)가 옆으로 뻗어 새로운 싹눈을 내는 무성번식을 한다는 점이 유사 분류군과 다른 점이다. 발견 당시 식물체가 미성숙 개체였던 관계로 현지 동정이 어려워 이 교수는 새로운 분류군의 가능성까지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으나, 채집된 식물체를 학교로 가져가 꽃이 필 때까지 재배해본 결과 애기바위솔로 동정되었다고 했다.

뚝마타리 *Patrinia hybrid* Makino는 1980년 7월 25일, 고군산군도 방축도에서 역시 고 이창복 교수가 발견 했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에 발견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사에서 처음 발견되는 것이다. 근경이 짧게 옆으로 뻗으면서 새싹이 나와서 퍼지며, 식물체의 외형은 뚝갈처럼 생겼으나 잎과 줄기의 색깔이 마타리처럼 다소 황색이 돈다는 점이 다르다. 화서부분 이외에는 거의 털이 없다. 키는 60~120 cm이며 원줄기의 중앙부 이하는 갈색이 돌고, 상부는 처음에 황록색이다가 초록색으로 변하며, 대생엽 사이에 밑으로 향한 두 줄의 털이 있고 화서부분에 털이 있는 외에는 식물체 전체에 털이 없다.

잎은 교호대생하는데 중앙부에 달린 것은 난형으로서 길이 9.7 cm, 너비 4.7 cm이며, 밑부분이 갑자기 좁아져서 길이 4 cm 정도의 엽병처럼 되고, 엽병처럼 좁아진 양측이 1~2쌍의 우편(羽片)으로 갈라진다. 우편은 밑

의 것이 작고 탁엽처럼 보이며, 위의 것은 도란형 또는 도피침형으로서 가장 큰 것이 길이 1.4 cm, 너비 4 mm 정도이고, 2~3개의 톱니가 있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이 밋밋하다. 엽신에는 위를 향한 굵은 톱니가 있고 끝은 짧게 뽕족하다. 근생엽은 엽병이 보다 길고 잎도 크며, 원줄기에 달린 잎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져서 화서 밑에서는 엽병을 포함한 길이가 5.6 cm, 너비 1.5 cm, 엽병의 길이 2.2 cm이다. 꽃은 9월 하순에 백색으로 피며, 화서, 꽃 및 열매의 형태는 뚝갈과 구별하기 어렵다.

역시 고인이 되신 이영노 교수는 1985년 7월 25일, 함양군 백운산일대종합학술조사에 참가하여 황석산 약 850 m 부근에서 세뿔투구꽃 *Aconitum rocemulosum* Fr.을 발견했다. 그 때 이 식물을 사진에 담으며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세뿔투구꽃은 고 양인석 교수가 1958년 금오산 용제봉에서 채집하여 신종(*Aconitum trilobum*)으로 발표했던 식물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미 발견된 식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포지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희귀하게 발견되는 식물이다. 다년초이며, 곧추 자라고, 높이는 60~80 cm이며, 화서부분 이외에는 털이 없고 가지가 갈라지지 않는다.

잎은 5각형 또는 3각형이며, 3~5갈래로 갈라져 있고 밑부분의 것은 3개로 갈라지고 양쪽 열편이 다시 2개로 갈라진 다음 각 열편의 끝이 결각상으로 갈라진다. 그러나 중앙부의 잎은 5개로 중열되며 열편은 능형으로서 서로 겹치고 가장자리에 치아상의 톱니가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3각형으로 되고 엽병이 짧아지며 끝이 뽕족해진다. 꽃은 9월에 하늘색으로 피며, 액생하는 총상화서에 달리고 소화편에 털이 있다. 뒤쪽의 꽃받침 잎은 투구 같으며, 길이는 1.8 cm 정도로서 앞부분이 새의 부리처럼 된다. 옆의 꽃받침

있는 둥글며, 밑의 꽃받침잎은 긴타원형이고 모두 곁에 잔털이 있다. 수술은 많으나 암술은 3~4개이고 골돌(蓇葖)은 3개로서 긴 타원형이며 암술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곁에 잔털이 다소 있다.

1995년 6월 29일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선병윤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되는 미기록 분류군을 두 가지나 발견하는 쾌거를 올린다. 하나는 무엽은난초 *Cephalanthera erecta* var. *subaphylla* Ohwi이고, 다른 하나는 털타래난초 *Spiranthes sinensis* var. *amoena* (M. Biebersson) Hara이다.

무엽은난초는 원변종인 은난초 *Cephalanthera erecta* var. *erecta*와 유사하다. 그러나 식물의 크기가 작고 잎이 퇴화하여 인편상이거나 혹은 잎이 있다하여도 1~2장 달리고 소형으로 2 cm 이하이어서 은난초와 구별된다.

그리고 털타래난초는 원변종인 타래난초 *Spiranthes sinensis* var. *sinensis*와 유사하지만 화서에 털이 밀생한 점으로 구별되며, 그래서 우리말 이름을 털타래난초라고 했단다.

1994년 8월 2일, 소백산종합학술조사에서 이우철 교수는 희귀식물 자원인 구슬맹덩이 나무 *Lonicera vesicaria* Komarov를 발견한다. 소백산 제1연화봉 정상 근처에서 발견된 이 식물은 우리나라 중부 이북의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 낙엽관목으로서 가지는 백색이고 소지는 적갈색이며 털이 있다. 잎은 대생하며 난형이고 전면에 털이 있다. 꽃은 5월에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화관은 연한 황색이다. 열매는 둥글고 잔털이 밀생하며 7~8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이 식물은 중부 이북의 고산에만 자라는 식물로 지금까지는 강원도 양구의 대우산이 분포 남한계로 알려져 있었다.

1978년에 실시된 남해 거제도 남부 및 인근도서종합학술조사에서 고 김태욱 교수와

김삼식 교수는 7월 20일, 거제도 인근 비진도의 식물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미기록식물인 비진도콩 *Dumasia truncata* Siebold et Zucc.을 발견하고 비진도콩이라는 우리 이름을 새로 붙였다.

비진도콩은 다년생 덩굴성식물로서 줄기는 가늘고 흑자색이 돌며, 밑을 향한 짧은 털이 있는 것도 있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며 3출엽으로서 엽병이 길고 소엽은 긴 난형이며, 뒷면은 흰빛이 돌고 짧은 복모가 다소 있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총상화서는 잎겨드랑이에서 1~3개가 나오며, 길이 2~5 cm로서 화경이 있고, 꽃은 8~9월에 황색으로 핀다. 꼬투리는 도피침형이고 길이 4~5cm, 너비 7~8 mm로서 연한 자주색으로 익는다.

## 어려웠던 순간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조사는 악천후를 만나기도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1960년대에 실시되었던 DMZ 인접지역 생태계조사 때에는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어떠한 사고도 감수한다는 확인서를 쓰기도 했다. 조사는 총을 든 병사의 사주경계 속에 진행된 적도 있고, 비무장지역에서의 산불로 유탄들이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철책선을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다.

동부지역 모처를 조사할 때의 일이다. 일행을 태운 트럭은 좁고 구불구불한 비포장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S자형 도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던 차량이 도랑 하나를 건너는 듯 하더니 갑자기 뒤로 슬슬슬 구르기 시작한다. 엔진이 꺼져 버린 것이다. 누구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당황해 하고만 있는 순간 속절없이 굴러 내리던 차량은 장마로 무너져 내린 도로 옆 벼랑쪽에 한쪽 뒷바퀴가 떨어지면서 뒤집혀 버리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행 중 대부분이 쏟아

지뿔 떨어져 내린 곳이 벼랑 아래 흙비탈 위여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다리를 다치기도 했고, 아예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도 있어서 속초의 도립병원을 거쳐 서울까지 응급 후송되기도 했다. 조사는 물론 중단되었고 후일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1993년 8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금오지구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용 선박이 암초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금오지구는 조사지역이 모두 크고 작은 섬들이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해 이동할 수밖에 없다. 현지조사 마지막 날인 4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도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조사지인 섬을 출발해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배가 포구를 벗어나서 섬의 암벽을 끼고도는 순간 무엇인가에 부딪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배는 너무나 쉽게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거의 90도 각도로 누워버렸다.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들어보았던 비상경고음을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본능적으로 반대쪽 난간을 붙들고 나서야 일행의 안위를 살핀다. 대부분은 필자와 마찬가지로 배의 난간을 잘 붙들고 있었으나, 젊은 대원 2~3명은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다.

그제서야 주변을 살펴보니 가까이에 있던 어선들이 우리의 배를 향해 접근해온다. 한결 안심이 되면서도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간다. 이때 정말 예기치 않았던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옆으로 누운 채 물결에 흔들리던 배가 갑자기 다시 일어선 것이다. 기적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모두들 안도하는 사이에 물에 뛰어 들었던 사람들도 접근해온 어선에 모두 올라갈 수가 있었다.

동행했던 방송사의 카메라 한 대가 바다에 가라앉았고, 채집품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말고는 모두 무사한 셈이다. 일행은 모두

어선을 이용해 숙소로 돌아왔고 다음날 무사히 섬을 떠나올 수 있었다.

1976년도의 조계산일대종합학술조사도 필자에게는 기억에 남는 조사다. 당시만 해도 조사지에 접근하는 도로망이나 숙소 사정이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열악했다. 조사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현장 가까이에 숙소를 정해야 하는데 조계산에서는 도저히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다. 사전조사를 위해 현지에 간 필자는 할 수 없이 선암사에 부탁을 해보기로 했다. 고맙게도 스님은 기꺼이 이를 수락하고 점심 도시락만 빼고는 식사까지도 실비로 해주겠다고. 그나마도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가. 그래서 점심은 순천의 식당에 부탁해서 배달을 받기로 했는데 아침에 조사단이 출발할 때까지는 못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국 아침에 조사단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점심을 산으로 배달하기로 했다.

점심때가 되어 길도 없는 조릿대숲을 뚫고 약속장소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나니 앞으로 사흘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더욱 황당하고 난감한 일은 그날 저녁식사 때에 생겼다. 조사단의 한분이 ‘하루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다’면서 막무가내로 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이다. 천년고찰이라는 절집에서 말이다.

## 맺는말

필자에게 맡겨진 집필 내용은 ‘식물분야의 연구업적 및 조사 연구 에피소드’이다. 46년이라면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이 아닌가. 필자가 직접 관여했던 기간의 일만으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지만 막상 글로서 남기기에는 망설여지는 이야기가 더 많다.

필자는 협회가 그간에 실시했던 50여 개

소의 학술조사 사업 가운데 약 30개소 정도의 조사사업에 조사단 운영을 맡았던 것 같다. 돌아보니 실로 많은 얼굴들과 사건들이 떠오른다. 그 중에는 잊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운 얼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 얼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셨다.

이번 기획의 의도도 이런 많은 선배 선생님들의 선각자적 사고와 노력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학술조사위원회’로 처음 출범한 1963년 이래 현재까지의 업적을 자평해 본다면 한마디로 괄목할 만 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가운데

서도 특히 그간에 실시된 50여 회 이상의 생태계 종합학술조사는 대부분이 해당지역 자연 생태계에 대한 최초의 종합학술조사로서 후일의 관련 연구에서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협회의 이러한 지난 업적이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빛나는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업적은 다만 앞으로 나아가는 토대일 뿐 전도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협회는 이번의 기획을 계기로 이즈음의 협회 활동이 단순히 과거의 관행만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아울러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